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화하는 시간이다. 어느 때는 자기가 전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화가 걸려 온다. 직접 걸려 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걸려 오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화인지 모르고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전화하실 때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소리가 들려오지만, 사람을 통해 전화가 올 때는 그 소리가 사람 소리로 들려온다. 어느 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들려오고, 어느 때는 만물로 보여 깨닫게 하며 들려온다.
3. 기도는 범사에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죽은 것이다. 매일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정해 놓고 해야 된다.
4. 사람끼리도 살아갈 때 서로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그러하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때를 따라 주기도 하시고, 안 주는 기간이라 안 주기도 하시지만, 대개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신다.
6.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7.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된다.

8. 메시아도 선지자들도 기도하면서 그 시대 말씀을 받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어 그 뜻을 개인과 가정과 민족 단위로 이루게 한다.
9. 기도는 ‘시간’도 ‘때’도 정해 놓고 많이 하고, 깊이 해야, 기도로 해결할 것들이 해결된다.
10. 저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기도의 길’을 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오고 가며 통하게 된다.
11. 기도하면 ‘잘한 일’도 생각나고, ‘못한 일’도 생각한다.
12.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하기에, 선악을 깨우쳐 주시어 평소에 생각나지 않는 것도 생각나게 해 주신다.
13. 사람끼리도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지듯이, 하나님과도 ‘기도라는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진다.
14. 기도하면 말씀하시니, 말씀도 받게 된다.
15. 말씀을 받고 실천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같이 쓰게 해 주신다.
16. 사람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보이는 한계’가 있고, ‘들리

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의 범위는 조금이다. 보이고 들리는 만큼만 만물의 신비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러나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구 세상을 다 보시고, 눈과 비가 떨어지는 시발점까지 보신다. 그 희열과 스릴과 오묘함과 신비함을 천주만큼 듣고 느끼신다. 전지전능하신 만큼 느끼신다.

17.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 묻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한꺼번에 보시고, 그 소리도 한꺼번에 다 들으시는데, 그 희열과 신비와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신만 느끼고 좋아한다면 보람이 적고, 알아주는 자들이 없으면 그것도 아쉽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누가 알아주겠냐고 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니,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대체, 인간들이 알아드려야 만족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니, 하나님은 “네가 깨달았으니, 네가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하나님께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드릴 수 있도록 전해 주겠습니다.” 대답하고도,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보셨으니 나 역시도 전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보다 100조만 배, 1000조만 배 더 보고 들으시고, 그만큼 신비함도 웅장함도 아름다움도 더 느끼며 사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18.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두고, “무한하다.”

라고 말할 수만 있지, 그만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다만, 영계에 들어가서 영으로는 육신보다 100배, 1000배 더 보고 느낀다.

19. 사람이 육신을 벗어나 ‘온전히 휴거된 영’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만물의 신비함도 웅장함도 아름다움도 하나님만큼 보고 듣고 느끼게 되지만, 상대체라도 하나님과는 그 차이가 해와 달 같을 것이다. 지금은 육신이니, 그 차이가 해와 별과 같기도 하다.

20.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받은 때는 봄비가 하염없이 쏟아지는 2월 초, 하나님 성전 마당의 천막 속에서 기도하던 새벽이었다. 처음에 빗소리를 듣고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되었으나, 그 소리를 좋아하며 들으니 떨어지는 소리마다 신비하게 들리며 아름다웠고, 그윽한 소리가 스릴이 있고 마음을 감동시켰다. 각종 악기가 은은하게도 들리는 것 같아 자연의 연주 소리로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구 세상의 비 오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이 소리도 정말 기뻐하며 신비하게 들으시겠다. 내게도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들리는데, 전능자 삼위일체는 얼마나 더 듣고 느끼며 만족하실까?” 하고 깨달아진 새벽이었다.

21.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와 눈과 바람과 모든 만물들을 모두 기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보고 느끼고 만족하며 감동받고, ‘전능자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만물

과 함께 영광을 돌려라.

22. 사람들의 거슬리는 말들도 하나님과 성령님께 속해 들으면, 분노하거나 노할 것도 오히려 교훈이 된다.